

# 〈멸치후리는 노래〉의 實相

한 기 흥\*

## 目 次

- |              |         |
|--------------|---------|
| 1. 머리말       | 4. 사실분석 |
| 2. 背景        | 5. 機能   |
| 3. 分布 및 傳承實態 | 6. 마무리  |

## 1. 머리말

〈멸치후리는 노래〉는 전국 해안에 띄엄띄엄 分布되어 있는 노래로서 백사장이 널따랗게 형성된 곳 또는 주변마을에서 공동으로 그물을 가지고 멸치를 후리면서 부르는 남녀 共同의 勞動謠로서 漁業謠이다. 멸치를 제주도 방언으로는 ‘멜’이라고 하는데 현지에서는 〈멜후림 소리〉·〈멜후리는 노래〉<sup>1)</sup>·〈닷 땡기는 소리〉 등으로 일컫는다.

\* 회원

1) 金榮敦, 濟州島民謠研究: 女性勞動謠를 中心으로, 東國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83, p. 25.

멸치후리기는 해안의 모래밭이 형성된 마을에서 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그물 안에 가둔 멸치떼들을 해안 가까이로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그물을 상하지 않도록 하고 일하기에 수월한 백사장을 택해야 좋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제주도의 勞動謠 중에서도 農業謠에 대한 調査·研究는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나<sup>2)</sup> 漁業謠에 대한 조사·연구는 아직도 미진한 상태이다. 더구나 <멸치후리는 노래>의 경우는 제주도내에서도 이를 제대로 傳承하는 提報者가 극히 드문 편이어서 연구의 실적이 소수에 이를 뿐 아니라 작업실태가 사라짐으로써 그 傳承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노래라는 것을 감안할 때 資料의 採集이나 研究는 시급한 실정이 아닐 수 없다.

이 글은 제주도 민요의 實相을 총괄적으로 조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謠種別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見解에서 그 중의 하나로 <멸치후리는 노래>의 實相을 파악함으로써 제주도 민요의 綜合的 理解를 위한 예비작업으로서 그 意義를 두고자 한다.

<멸치후리는 노래>는 全國海岸에 띄엄띄엄 散在되어 있지만 여기에서는 제주지역에 局限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內容은 <멸치후리는 노래>가 口演되는 背景, 작업 실태 등을 알아보고 노래가 分布된 地域과 傳承實態, 辭說分析, 機能 등을 考察함으로써 그 實相을 밝히고자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하고 풍부한 자료 수집이 근거가 되어야 하나 기존자료의 미비와 현재 <멸치후리는 노래>의 전승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sup>3)</sup>이므로 구연자료 확보의 어려움에 限界點이 있다.

---

2) 이 방면의 주요 업적으로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金榮敦, 위의 글

趙泳培, 濟州島 勞動謠의 音組織과 旋律構造에 關한 研究 : C. Sachs와 R. Lochmann의 理論을 中心으로,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4.

姜性均, “제주도의 김매는 노래 연구”,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6.

金承泰, “濟州島의 연자매와 그 民謠 研究”,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6.

이글에 활용된 자료는 다음과 같이 총 <12>편이다.

<표1> <멀치후리는 노래> 자료수집 상황표

필자채록

조 사 년 월 일	조 사 대 상 지	수 집 편 수
1987. 7. 28	구좌읍 동길녕리	1
1987. 7. 30	성산읍 신양리	1
1987. 8. 10	조천읍 함덕리	1
1987. 8. 29	성산읍 신천리	1
	계	4

- Ⅱ. 金榮敦:〈濟州島民謠研究(上)〉, 一潮閣, 1984. (6편)  
 Ⅲ. 제주대학교 국어국문·국어교육과:「학술조사보고서」(제8집), 동광인쇄사, 1984. (2편)

## 2. 背 景

이글에서는 제주도의 <멀치후리는 노래>만을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하므로 그 背景 또한 제주도의 멀치후리기 漁撈行爲에 局限한다.

<멀치후리는 노래>는 <海女노래>·<벧노래>·<멧목젓는 노래>들과 더불어 漁業謠에 속하는데, <海女노래>는 제주도의 海村 全地域에서 해녀들에 의해 널리 불려지지만 <멀치후리는 노래>는 제주도의 海村 가운데서도 制限된 곳에서만 불려지던 노래이다.

제주도 해안마을에서 과거 멀치후리기가 이루어지던 곳은 현재 海水浴場을 이루고 있는 지역으로서 濟州市 梨湖洞·三陽洞, 涯月邑 郭支里, 翰林邑 挾才里, 大靜邑 下壘里, 安德面 和順里, 表善面 表善里, 城山邑 新陽里, 舊左邑 細花里·東金寧里 등이다.

멀치후리기는 백사장을 이룬 마을과 이에 근접해 있는 마을 중 해안에 소규모의 모래밭을 이룬 지역이라면 어디든지 멀치잡이가 이루어져 노래가 전승되

는데, 지금은 朝天邑 咸德里, 舊左邑 東金寧里, 城山邑 新陽里, 城山邑 新川里 등에서만 주로 전승되고 있음이 확인될 뿐이다. 과거에는 멸치후리기가 이뤄졌던 모든 지역에서 漁撈行爲와 더불어 노래를 불렀는지는 알 길이 없다.

멸치후리기는 음력 3월에서 10월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대개 5~6월에 가장 많은 멸치잡이가 행하여진다. 이 어로행위는 주로 밤중에 이루어지며 ‘물때’에 맞추어 멸치후리기 작업이 진행된다. 멸치후리기는 공동작업이므로 體系的·組織的이어야 한다. 작업과정이 분업과 협업의 단계적 과정을 밟으며 有機的 構造로써 완성된 하나의 共同體를 형성하는 것이다. 멸치후리기를 하려면 먼저 어장에 멸치가 몰려 왔는지의 여부를 배가 가서 확인하는데 이 배를 ‘당선’ 또는 ‘멜당선’ ‘상선’이라고 부르며 지역에 따라 명칭도 다르다. 당선은 어로정보를 파악하는 기능을 지니고 맨 먼저 出漁하는 멸치떼들이 몰려 온 양과 또는 그 날에 알맞는 간만의 차의 확인, 그물을 드리울 위치와 방향, 작업의 지휘 등을 맡으며 당선에는 멸치어장에 대한 식견과 판단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 타게 마련이다. 당선은 보통 1~2척이 나가며 1척에는 대개 2~3명씩 탄다. 당선이 멸치떼를 확인한 후 다시 그물을 싣고 나갈 때에는 망선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망선은 그물을 싣고 나가는 배를 말한다. 멸치떼를 가두기 위하여 싣고 나간 그물을 펼치게 되는데 이때, 때[筏] 곧 ‘테베’는 그물의 끝 부분인 ‘개코’의 줄을 물가로 옮긴다. ‘개코’는 水深이 얇은 곳에 드리워진 멸치잡이 그물의 끝 부분을 말하며 ‘테베’는 곧 <테우>·<터위>·<터우>·<테>·<테위>·<터베>’ 등으로 불리는 때[筏]를 말하는데 멸치후리기 작업에서 줄을 옮기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망선은 보통 1~2척이 나가면 대개 2~5명이 탄다.

닷배는 펼친 그물을 조절하면서 멸치떼를 가두는 기능을 맡는다. 닷배는 흔히 때[筏]를 이용하는데 제주도에서는 어로작업에 흔히 이용 되었었다. 배의

3) 高光敏, “濟州島民具(Ⅱ) : 제주도의 메배와 그 어로행위들”, 《耽羅文化》 제4호,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85, p. 246.

4) 金榮敦, “멸치후리는 노래”, 《濟州道無形文化財 調査報告書》, 제주도, 1986, p. 113.

기능에 따른 명칭은 현재 노래가 傳承되고 있는 東金寧里의 명칭을 사용하였고 지역에 따라 멸치후리기 漁撈行爲에 따른 배의 명칭과 척수, 승선 인원수도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표2>와 같다.

<표2> 제주도의 멸치잡이에 따른 배의 명칭과 척수 1987.8 필자 현지조사

지역 기능	이호	곽지	협재	화순	표선	신양	세화	동김녕	삼양	합덕
멸치어장확인 및 지위	망선 (1)	상선 (1)	상선 (1)	큰배 (1)	상선 (2)	풍선 (2)	배 (2)	당선 (1)	상선 (1)	해상 (1)
그물을 실고 나감	"	"	"	"	중선 (2)	"	"	망선 (1)	하선 (4)	큰배 (2)
멸치 그물을 조절	태배 (2)	중선 (2)	중선 (2)	작은배 (2)	하선 (1)	덕판배 (1)	태배 (5)	테베 (7)	중선 (4)	개코 질이 (2)

※괄호 안의 숫자는 척수

위 <표2>에서 보면 멸치잡이 漁撈行爲에서 배의 기능에 따른 명칭이 고정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곧 東金寧里는 기능별 명칭이 뚜렷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당선과 망선의 명칭을 같이 사용하는 곳도 있다. 이호에서는 당선에 해당하는 명칭이 따로 없고 망선이 당선의 명칭으로도 쓰이고 있으며 곽지와 협재에서는 '상선'이 화순에서는 '큰배'가 신양리에서는 '풍선'이 당선의 기능을 맡는다. 세화에서는 배의 기능에 따른 명칭이 따로 없고 그대로 배로 불리며 모슬포에서는 테베를 가지고 모든 기능을 담당했다고 한다.

멸치후리기 작업은 단지 사람들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모든 어로기구를 동원한 組織的·體系의인 작업이다. 멸치잡이는 契員들이 발일을 끝내고 돌아온 후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서서히 준비가 시작된다. 그물막에 있는 그물과 어로기구들을 내어 놓고 당선은 제일 먼저 출어하여 멸치떼들이 물린 장소를 확인한다. 당선에서 멸치떼의 위치를 확인하면 망선에서는 그물을 실고 닻배와 함께 멸치떼가 있는 해안으로 나간다. 망선이 실고 간 그물을 펼쳐 놓으면 닻배는 그물을 끝 부분인 '개코'의 줄을 해안가로 옮긴다. 닻줄이 해안가에 닿으면 양쪽에서 계원들이 그물을 당겨 멸치떼를 포위하는데 이

를 防陣網이라고 한다. 이렇게 防陣시킨 멸치떼들은 작은 그물로 잡기도 하고 족바지로 걸러 내기도 하는데 이렇게해서 잡은 멸은 큰 대바구니와 같은 '고리'에 담아 운반된다. 멸치후리기는 남자들이 하는 힘든 작업이므로 부녀자와 아이들은 대개 어로작업에서 제외되나 백사장에 널린 멸치들을 되고 재거나 짐으로 나르는 역할을 함에 있어서는 훌륭한 몫을 담당하기도 한다. 멸치후리기 어로작업에서 女性이 직접 작업에 참여하여 닳줄을 당기는 경우는 보기 힘들지만 城山邑 新陽里에서는 부녀자들이 직접 漁撈行爲에 참여했다고 한다. 그리고 작업에서 제외된 부녀자와 아이들은 모래밭에서 구경을 하거나 잠을 쫓기 위하여 노래를 부르기도 하였다. 또한 백사장에 퍼다 놓은 멸치들을 소임 몰래 훔쳐 가는 백사장의 아이러니한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한다.

멸치후리기의 종류는 海岸의 形勢에 따라 크게 둘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해안가에서 이루어지는 멸치잡이이고 다른 하나는 육지에서 좀 떨어진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멸치잡이이다. 후자는 해안의 독특한 형성 때문에 생겨난 것으로서 해안가에서 가까운 곳은 水深이 깊으나 좀 더 떨어진 어느 지점은 모래밭을 이루고 수심이 낮은 지역이어서 이곳에서 멸치후리기 작업이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때에도 전자와 작업과정은 같지만 후자에서는 防陣網안으로 테우가 들어가 족바지로 멸치들을 떠서 '고리'에 담은 후 이를 테우에 싣고 물에까지 옮겨 지는 것이다.

멸치후리기 작업은 집단어로이므로 주민들끼리 친선도모와 협력을 위한 계조직을 한다.

계원의 수는 地形과 마을의 규모에 따라 일정치 않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래의 <표3>과 같다.

<표3> 제주도내 멸치잡이 契組織의 契當 契員數

1987. 8. 필자조사

지역 인원수	이호	곽지	형재	화순	포선	신양	새화	동김녕	삼양	합덕	모슬포	평균
	35	60	57	20	60	40	30	65	60	40	30	45

이러한 멸치잡이를 위한 공동조직체를 제주도에서는 <계> 또는 <집>·<재>라 부르며 한 마을에서 최대 8집까지 구성되어 있는 곳도 있다.

각 지역의 제조직을 살펴 보면 <표4>와 같다.

<표4> 제주도내 멸치잡이 契組織의 명칭

1987. 8. 필자조사

지역 \ 사항	계수	제조직의 명칭
이 호	8	남당집·오도통집·황골집·새집·백계 동카름집·백계서카름집·백계새집·오도통 새집
곽 지	4	모살집·중집·서집·신집
협 재	2	신집·구집
표 선	1	농진회(뒤에 '2구회'로 개칭)
신 양	2	오등애 그물집·진방뒤 그물집
동 김 념	4	아락집·신산집·고분개집·청굴집
삼 양	3	큰재·말젓재·적은재
합 덕	8	새선진·작선진·만월여 그물·싸움판·큰그물·사선진·새맺선진·복촌 뒷개그물
세 화	3	신집·구집·통집
월 정 <sup>5)</sup>	6	신새 그물집·베룡계 그물집·송포 그물집·섯동네 그물집·구새 그물집·큰 그물집

契의 가입과 탈퇴는 자유이나 契에 가입하면 共同出資, 共同漁撈, 共同分配하게 되면 어로활동에 수고가 많은 사람들은 수고와 투자에 비례해 몫을 분배받는다.

契의 運用을 위한 계급 및 직능은 <표5>와 같다.

계장은 대개 그 마을의 원로로서 契를 대표하며 공원은 계의 財務 및 명부의 확인과 배당을 맡고 소임은 인력동원과 잡일을 떠맡는다.

주5) 구좌읍에 있는 자연부락 이름

〈표5〉 제주도내 멸치잡이 계조직의 계급 및 직능

1987. 8. 필자조사

지 역	이호	박지	현재	동김녕	새화	합덕	포선	삼양
마을의 원로	으뜸							
외견조정 및 방향제시	공원 으뜸							
계의 대표	소임	계장	소임	계장	으뜸	도가	소임	계장
명부확인 및 재무관리	재무	공원	재무	공원	공원	으뜸	재무	소임
인 력 동 원	간사	소임		소임	소임	소임		

한 마을에 멸치 어회를 위한 窠가 여럿일 경우에는 서로 순번을 정하여 어로작업을 하게 되는데 같은 날 들 이상의 계에서 출어할 때면 출어 순서에 따라 <선진>과 <후진>으로 나누어진다.

멸치후리기 작업은 불배의 등장 시기와 거의 때를 같이하여 완전히 사라졌는데, 지금은 태베를 동원한 異國의인 정취를 자아내는 멸치후리기 작업은 전혀 찾아 볼 수가 없고 현재 朝天邑 威德里에서 5~10인이 과거의 그물을 축소 한 꼴로 멸치를 잡는 행위가 간혹 이루어질 뿐이다.

가장 소중히 아끼고 보존해야 할 것이 문화유산이라면 작업실패가 소멸되고 전승자마저 사라져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조직적인 멸치후리기 작업에 대한 理解와 保存을 위하여 현장 재현을 통해 과거의 작업 과정을 영상에 담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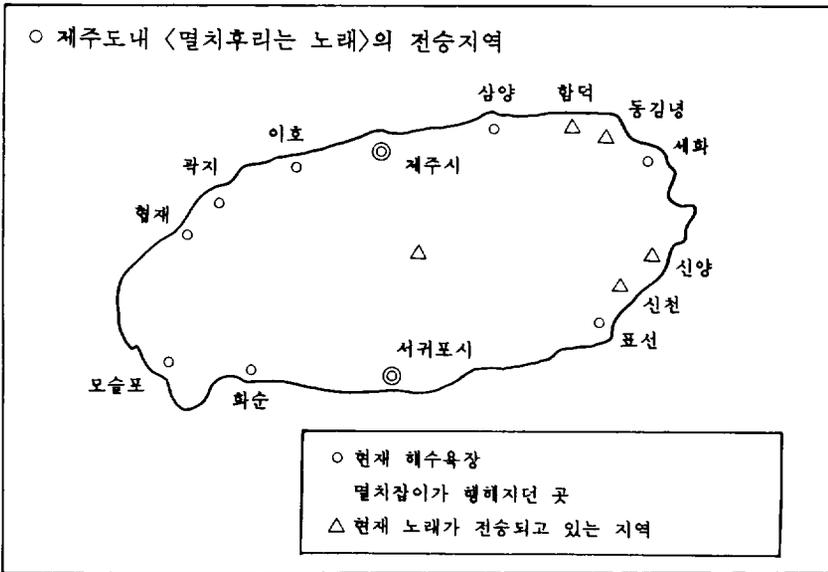
### 3. 분포 및 傳承實態

제주도의 멸치후리기 작업은 白沙場이 깔린 해안에서만 이루어지던 일거리

였기에 제주도 전체에서 볼 때 局地的인 分布를 이루어 제주도내 지역 중 모래사장을 이룬 해안마을 또는 그 주변 마을에서만 <멸치후리는 노래>가 불리어졌다.

이 <멸치후리는 노래>는 제주도의 勞動謠 중 한 가지 漁撈行爲에 畵한 인원 이 동원됐던 노래 중의 하나로 저절로 작업실태가 사실 속에 용해되면서 전승되어 왔다.

제주도내에서 멸치잡이가 이루어졌던 곳과 <멸치후리는 노래>가 전승되고 있는 지역을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梨湖·郭支·挾才·華瑟浦·和順·表善·細花·三陽은 현재 해수욕장으로 즉, 멸치후리기가 행해지던 곳이고 威德·東金寧·新陽·新川 등은 지금까지 노래가 전승되고 있는 지역이다. 民謠는 流動文學이기 때문에 멸치후리기가 행하여졌던 곳은 모래밭이 형성된 해안 마을이었지만 <멸치후리는 노래>는 주거이전이나 상호 교류에 의하여 다른 곳으로 전파될 수도 있다. 멸치후리기가 이루어지던 지역의 작업의 소멸시기도 각각 다르며 제주도의 서쪽 지역에 비

하여 동쪽 지역의 소멸시기가 느린 편이며 현재 전승되는 곳도 모두 동쪽 지역이다.

여태껏 확인된 바 제주도의 勞動謠는 30여종에 이른다.<sup>6)</sup> 이 중 漁業謠에 해당하는 것은 〈海女노래〉·〈뱃노래〉·〈뗏목젓는 노래〉·〈멸치후리는 노래〉 등으로 漁業謠의 종류는 農業謠에 비하여 적은 편이며 〈海女노래〉를 제외한 〈뱃노래〉·〈뗏목젓는 노래〉·〈멸치후리는 노래〉는 기술과 장비의 발달로 인하여 작업실태는 사라진 지 이미 오래이며 노래도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거의 사라져 아주 드물게 남아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서는 〈멸치후리는 노래〉는 어떻게 전승되고 있으며 누구에 의해 불러지고 있는지 작업실태와 관련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민요의 사활 여부를 두고 네 가지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는데 작업과 민요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A.작업과 민요 모두가 현존된 뿐더러 이 둘이 밀착된 경우 B.작업과 민요 모두가 현존되기는 하되 이 둘이 분리된 경우 C.작업은 이미 사라졌고, 민요만 남은 경우 D.작업은 남아 있되 민요는 사라진 경우 등이다.<sup>7)</sup> 〈멸치후리는 노래〉는 C형이어서 작업은 이미 사라졌고 노래만 남아 있다. 작업실태가 사라진 오늘날 다른 민요와 마찬가지로 민요의 자연적 전승은 있을 수 없고 현재 남아 있는 민요는 인위적 조건에 따라야만 들을 수 밖에 없다. 작업이 사라져 버린 노동요의 전승은 어떤 종류든 대체로 이런 실정이다.<sup>8)</sup> 勞動謠는 작업과 관련하여 불리어지는데 민요의 전승도 작업이 남아 있을 때 잘 전해지는데 작업이 사라지면 더불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잊혀지게 마련이다. 현재 노래가 전승되고 있는 곳은 咸德里·新陽里·東金寧里·新川里 등인데 翰林邑 挾才里·安德面 和順里 등에서는 힘을 덜기 위하여나 동작을 맞추기 위한 ‘어기여차’ 또는 ‘어여싸’ 등의 餘音句만을 소리하면서 닦줄을 당겼다고 한다.

멸치후리기는 힘든 어로작업이므로 주된 가창자는 남자이리라 여겨지지만

6) 金榮敦, 앞의 책, p. 25.

7) 金榮敦, 앞의 책, p. 36.

8) 金榮敦, 앞의 책, p. 36.

가끔 뛰어난 여성이 작업에 참여하거나 작업장 주변에서 일의 활력을 불러 넣고 동작을 맞추게 하기 위하여 여성들에 의하여 불러지기도 하였다.

〈멸치후리는 노래〉의 전승자는 현재 기능 보유자로 지정된 동김녕리의 김경성씨의 표면적으로 드러난 숫자는 다른 민요에 비해 보존이 매우 시급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소수이다. 근래 들어 멸치후리는 노래의 전승을 위해 계승자가 나타나고 있어 반가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 4. 辭說 分析

모든 勞動謠와 마찬가지로 〈멸치후리는 노래〉의 사실 또한 ① 作業實態만을 노래하는 사실과 ② 작업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庶民生活 전반에 걸친 歌昌者들의 감정이나 의식을 노래하는 사실로 나누어진다.<sup>9)</sup> 노동요 가운데도 인간의 감정을 폭넓게 표현한 〈맷돌·방아노래〉의 경우는 ②의 비율이 높고 작업이 거칠고 노래가 드물게 전해지는 〈멸치후리는 노래〉의 경우는 대부분 ①에 속한다. 〈멸치후리는 노래〉의 사실은 대부분 작업실태를 노래하는데 이는 거친 바다에서 힘든 동작을 요구하는 멸치후리기 어로 행위가 그 작업의 힘듦으로 인하여 저절로 작업의 실태를 사실내용에 담고 있기 때문이다. 밖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밖에서 불러지던 노래이기에 일상감정을 노래한 풍부한 사실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사실의 내용만 보고도 작업과정이나 상황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사실내용이 작업실태를 노래하기에 딱 사실적이다.

앞서 든 12편의 자료를 활용하여 〈멸치후리는 노래〉의 사실내용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9) 金榮教, 앞의 책, p. 46.

〈資料〉

1. 구좌읍 동김녕리 민요
  2. 조천읍 함덕리 민요
  3. 성산읍 신양리 민요
  4. 성산읍 신천리 민요
  - 5-①. 애월읍 광지리 민요
  - 5-②. 애월읍 광지리 민요
  - 6-①. 1128번의 자료
  - 6-②. 1125번의 자료
  - 6-③. 1126번의 자료
  - 6-④. 1127번의 자료
  - 6-⑤. 1129번의 자료
  - 6-⑥. 1130번의 자료
- 6-①②③④⑤⑥은 〈濟州島民謠研究上〉의 資料

위에 든 자료를 가지고 사실내용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표6〉 〈멀치후리는 노래〉의 사실내용 분석

내 용	구 분	멀 치 후 리 는 노 래	
		謠 數	構 成 比
作 業 實 態		I, II, III, IV, V, IV-3 N-4, N-5 (8)	80%
民間의 情意		VI-1, VI-2 (2)	20%
計		(10)	100%

※괄호 안은 편수

〈멀치후리는 노래〉의 사실내용 분석표에서 노래는 위에서 든 자료의 숫자를 표기하였다.

〈멀치후리는 노래〉의 사실내용 분석표를 통하여 볼때 작업실태를 노래하는

편수의 비율이 80%에 이르고 民間의 情意를 노래하는 편수의 비율은 20%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멸치후리기가 거칠고 힘든 작업이므로 사설내용이 저절로 작업실태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침착하게 가라앉은 상황에서 멧들을 벗 삼아 마음껏 가다듬어진 사설을 노래삼아 부르는 〈멧들·방아노래〉의 경우는 내용면에서 풍부하고 재재도 다양하지만 〈멸치후리는 노래〉와 같이 거치른 들판이나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내용삼아 부르는 경우는 사설도 풍부하지 못하다.

다음은 경상남도 南海지방의 〈목도꾼소리〉이다.

〈목도꾼 소리〉

아- 에-

어- 이- 어- 이-

에- 어

에여에어 에어에어에어

.....

어- 지어여차 여여차

얼씨구나 여여여여여

에어차 에야에야

아이구 에어에어 에어차에어

어- 놓고<sup>10)</sup>

이 목도꾼소리는 워낙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는 까닭에 온 힘을 집중하게 되니 소리의 사설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sup>11)</sup> 이 소리는 노동요의 원시적 형태로써, 이처럼 힘든 노동요의 경우는 단순한 사실적 표현이나 행동통일의 기능을 담당한다.

10) 任東權, 『韓國民謠集』Ⅳ(集文堂1979), 노래번호 377.

11) 김무현, 『한국노동민요론』, 집문당, 1986.

<멀치후리는 노래>의 내용분석은 현재 활용되는 노래의 대부분의 자료들이  
작업실태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그 題材에 있어 거의 차이를 드러내지 않기에  
사실분석을 노래를 앞에 들고 뒤에 통합적으로 하기로 한다.

1.

영허야 디야 어기여 디여 방애여  
동깨코랑은 응그뭇너로  
    영허야 디야  
서깨코랑은 소여콧들로  
    영허야 디야  
당선에서 멜발을 보고  
    영허야 디야  
망선에서 후림을 놓으라  
    영허야 디야  
추저안골 사서안골 췌계  
    영허야 디야  
농괭이와당에 다 물러 놓고  
    영허야 디야  
앞깨계랑은 선진을 놓고  
    영허야 디야  
뒷깨계랑은 후진을 놓으라  
    영허야 디야  
한불로 멜 나간다  
    영허야 디야  
그물코이 삼천코라도  
    영허야 디야  
베릿배가 주장이로다  
    영허야 디야  
당선에 망선에 봉기를 꺾앙  
    영허야 디야  
공원 재장 부인들은  
    영허야 디야  
밥주겨 심엿은 춤을 춘다  
    영허야 디야  
우리 옛 조상들 향단 일울  
    영허야 디야  
잊어볼지 말아건 뉘살려보자

엉허야 디야  
 멜은 날마다 하영 거려다 놓고  
 엉허야 디야  
 큰뚝은 비양도 시집가고  
 엉허야 디야  
 셋뚝은 가파도 시집가고  
 엉허야 디야  
 죽은뚝은 법환리 시집가고  
 엉허야 디야  
 우리 두 늙은이만 이멜 어떻 처단허리  
 엉허야 디야  
 어기여 디여 방애여  
 엉허야 디야  
 (흥을 돋이기 위해 서우젯소리를 삼입)  
 어양어영 어양어영 어기여 디여 방애로구나  
 아~하아아양 어어어어~양 어어어어영  
 풍년 왔구나 풍년 왔구나  
 농괭이와당에 돈 풍년 왔구나  
 아~하아아양 어어어어~양 어어어어영  
 산엔가난 산신대왕  
 물엔가난 용궁선왕이여  
 아~하아아양 어어어어~양 어어어어영  
 이물에는 이사공아  
 고물에는 고사공아  
 아~하아아양 어어어어~양 어어어어영  
 허릿대밑에 화정하여 물때 점점 늦어나 간다  
 아~하아아양 어어어어~양 어어어어영<sup>12)</sup>

2.

어야 어허어기 방아로구나  
 아~하아아양 예예야 어허~이요  
 동이와당 광덕왕  
 서이와당 광인한이요  
 아~하아아양 예예야 어허~이요  
 어야뒤야 잘 땡겨온다  
 아~하아아양 예예야 어허~이요  
 동창으로 든온해가

12) 필자채록, 구좌읍 동김녕리, '87.7.28, 김경성, 여·59.

서창으로 다지도록

아~하아아양 에에야 어허~이요

요그물을 땡겨보면

금이나냥 은이나냥

아~하아아양 에에야 어허~이요

한쪽에다 들은손에

두착손을 마주궤영

아~하아아양 에에야 어허~이요

한지갑만 하면은

가득이나 닿는구나

아~하아아양 에에야 어허~이요

이물에랑 이상공아

저물에는 내사공아

아~하아아양 에에야 어허~이요

동착에서 잘때리고

서착에서 일심해라

아~하아아양 에에야 어허~이요

이물에랑 이사공아

고물에랑 고사공아

아~하아아양 에에야 어허~이요

한지갑 두지갑을

들고나면 꺾겨나

아~하아아양 에에야 어허~이요<sup>13)</sup>

3.

앵어야 디야로구나

앵어야 디야로구나

어여차 소리에 닷 올라온다

앵어야 디야로구나

우리네 인생 요닷을 땡겨

메르치 얼마나 올라나 오코

앵어야 디야로구나

우리 그물에 서낭님아

멜이나 많이나 쏘아오소

앵어야 디야로구나

서까달에 많이 땡겼구나

우리나 동까달에 어서나 땡겨라

---

13) 필자채록, 조천읍 함덕리, '87. 8. 10(김달생, 남·59, 양남준, 남·54).

앵어야 디야로구나  
 참봉님아 멜이나 많이나 둘러주소  
 앵어야 디야로구나  
 이여차 소리에 닷 올라온다  
 앵어야 디야로구나  
 설른어멍 나도날진  
 앵어야 디야로구나  
 남자로나 나 낫스면  
 앵어야 디야로구나  
 소임이나 해여나 볼질  
 앵어야 디야로구나  
 어여차 디여차 닷 올라온다  
 앵어야 디야로구나  
 땡기라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나 온다  
 앵어야 디야로구나<sup>14)</sup>

4.

어허야 땡겨라  
 오호야 땡겨라  
 예허야 땡겨라  
 이물사공은 밧도 잘 갈고  
 서가달도 땡겨라  
 동가달은 늘어진다  
 어허야 땡겨라  
 빨리 빨리 땡겨라<sup>15)</sup>

5-①

야 동줄이여 서줄이여 등이라 등이라  
 아이고 소부골련 요거 멜넘엄져  
 어서덜 요 동줄 ㄷ리라 서줄 ㄷ리라  
 아이거 이거이거 멜도 이거 많이 싸노난  
 멜 버치켜 그물 꼴지말앙 혼져ㄷ되  
 개코만 부치라 야 이거 혼져 개코만 부치민  
 허던 덕엇져덜 부지런히 등이라

14) 필자채록, 성산읍 신양리. '87. 7. 30(고인춘, 여·69).

15) 필자채록, 성산읍 신천리. '87. 8. 29(강홍규, 남·65, 송문배, 남·70).

동줄이여 동줄 동이라 서줄 동이라  
 동이라 동이라  
 야 이거 막 멜 질렘져 이거 어디 이거  
 혼저 혼저 툇런 부쩌라 부쩌라 멜 막 넘엄저<sup>16)</sup>

5-②.

(테우 위에서)  
 이여싸나아아 이여도싸나  
 한코떠넌 땡기곡 밀영가자  
 어여차 디여차 에야디야  
 어서가자 잘도간다  
 잘도간다 앞으로 물걸렁  
 어서 땡기곡 때 밀어라  
 잘도간다 어서어서  
 멜 저디 돌암져  
 저거 혼저 막으라 막으라  
 어서 짓으라 짓으라 네 짓으라<sup>17)</sup>

6-①.

이 서남이 어디서 놀단 서남이나  
 어게선 비게선 당돌이 감동선에 놀단 서남  
 모다돌민 일곱 동서  
 갈라사민 하나이다  
 큰바다 셋바다 므슬여서 놀단 서남  
 무성기앞에서 놀단 서남  
 망만 부튼 현 페리에  
 짓만 부튼 현 도폭에  
 목만 부튼 현 질목에  
 뒤축만 부튼 현 신착에  
 혼 뽐 못 혼 조델 물곡<sup>18)</sup>

6-②.

놀당 죽은 염송아지나

16) 제주대학교 국어국문·국어교육과; 「학술조사 보고서」(제8집), 동광인쇄사, 1984, p. 60.

17) 제주대학교 국어국문·국어교육과; 「학술조사 보고서」(제8집) 동광인쇄사, 1984, p. 60.

18) 金榮敦, 《濟州島民謠研究(上)》, 一潮閣, 1965, 1128번의 자료.

일하당 죽은 밧갈채나  
죽어지른 그뿐이여<sup>19)</sup>

6-③.  
대천바당에 뭇 올라오듯  
요디야 닷 올라온다<sup>20)</sup>

6-④.  
사농공상 직업중에  
우리네 어장이 지일이여<sup>21)</sup>

6-⑤.  
천고리에 만고리여  
이여싸 소리에 닷 올라온다<sup>22)</sup>

6-⑥  
청천하늘엔 뱀도 멧져  
우리네 구물속엔 뱀도 들었겨<sup>23)</sup>

<멸치후리는 노래>의 內容은 대부분 作業實態를 노래하고 있다.

民間의 情愴를 노래한 것은 6-②로서 生活苦를 內容으로 하고 있으나 그다지 感情의 폭이 깊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6-①은 서우젯소리의 사설로서 작업실태와는 무관하게 불려지고 있다.

1의 노래에서는 작업의 흐름에 따라 작업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하였으며 띄엄띄엄하고 역동적이다. 가락이 시원하고, 사설이 정연하며 노래의 뒷부분에서는 서우젯소리와 결합하여 풍어의 기쁨을 만끽하고 흥을 더욱 돋우고 있다. 그의 노래에서는 풍어를 이루기 위해 힘을 쏟는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 “동창에서 잘 때리고 서창에서 일심해라”와 같이 많은 멸치를 잡아들이기 위하여 힘을 합하는 동작이 나타난다. 노동요의 사설은 대체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

19) 金榮敦, 앞의 책, 1125번의 자료.  
20) 金榮敦, 앞의 책, 1126번의 자료.  
21) 金榮敦, 앞의 책, 1127번의 자료.  
22) 金榮敦, 앞의 책, 1129번의 자료.  
23) 金榮敦, 앞의 책, 1130번의 자료.

데 첫째는 노동과 관련된 사설이요, 둘째는 노동과는 관련없이 노래하는 이의 심정을 드러내는 사설이다.<sup>24)</sup> 1, 2, 3, 4, 5, 6-③, 6-④, 6-⑤, 6-⑥은 전자에 속하고 6-①, 6-②는 후자에 속한다. 3의 노래는 성산읍 신앙리의 민요인데 이곳에는 대부분 부녀자들이 작업에 깊이 관여하였기 때문에 소유에 대한 열망이 간절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여자로 태어난 데 대한 탄식과 설움을 소극적인 자세로 나타낸 恨의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하다. 3, 4의 노래는 작업실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맷돌·방아노래>와 같은 구성진 요소는 찾아볼 수가 없다.

앞서 든 민요는 서로 다른 지역에서 불려지는 한 종류의 노래이다. 이처럼 한 종류의 노래가 제각기 지역에 따라 다르게 불려지는 것은 民謠가 機能的, 民衆的이기 때문에 그 地域性이 짙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멀치후리는 노래>의 사설내용이나 가락이 지방마다 다르고 노래의 분포 또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민요의 특성인 지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1의 민요는 지역적 특성을 뚜렷이 드러내고 있는데 몇 구절을 살펴보기로 한다.

동계코랑은 응그뭇너로  
서계코랑은 소여긋들로  
추저안골 사서안골 궀게

위의 노래에서 응그뭇너, 소여긋, 추저안골, 사서안골은 東金寧里 海岸의 '여'와 '긋'의 이름이다. 이처럼 지명이 민요 속에 나왔을 때는 노래 속의 辭說內容만 보고도 어느 지역의 민요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동김녕리의 민요는 지역의 특성을 드러낸 민요라 할 수 있다.

앞서 든 민요는 저마다 사설과 가락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공통적인 사설내용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래와 같다.

24) 金榮敦, "민요의 기능과 사설", 《韓國文學研究入門》, 지식산업사, 1982, p. 117.

1.

이물에는 이사공아

고물에는 고사공아

2.

이물에랑 이사공아

고물에랑 고사공아

3.

이물사공은 밧도 잘 갈고

民謠는 작자나 연대가 불확실하고, 口傳되면서 변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노래가 생겨나 공통된 사실을 쉽게 찾아 볼 수가 없다.

6-①의 노래는 배와 바다에서 놀던 神을 나열하고 人間과 친숙한 신의 모습을 해학적으로 표현하여 인간과 신의 밀착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6-④는 풍어의 결과로 오는 만족과 자신의 漁場에 대한 확신이 사실 속에 나타나고 있다. 6-⑥은 청천하늘과 우리네 그물, 별과 멜의 비교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 만큼이나 그물안에 많은 멜을 잡아들였다는 사실내용을 담고 있으며 비교가 뛰어나다. 지금까지 활용된 자료 중에서 사실내용은 대부분 작업실태를 노래하고 있고 民間의 情意를 다룬 내용은 아주 드물게 나타나고 있다.

## 5. 機 能

民謠의 기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문학적인 사실, 음악적인 가락, 부르는 사람, 불러지는 상황을 살펴 이들의 역동적 관계 속에서 綜合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sup>25)</sup> 그러나 같은 노래라 하더라도 부르는 상황이나 장소에 따라서 그 기능이 달라질 수가 있으므로 여기서는 <멀치후리는 노래>가 불러지던 작업장

25) 황정수, "민요의 기능", <한국민요론>, 집문당, 1986, p. 86.

소와 관련하면서 그 기능을 살펴보기로 한다.

〈멸치후리는 노래〉는 작업장과 관련하여 보았을 때에 두 가지로 나뉘어 불러지는데 하나는 테우 위에서 불러지고 다른 하나는 백사장에서 불러진다. 앞에 든 자료 중 5-②는 전자에 속하고 나머지는 모두 후자에 속한다. 백사장에서 불러지는 노래는 일의 동작을 맞추기 위하여 닻을 당기면서 부르는 노래와 작업과는 상관없이 백사장에서 부녀자들이 지루함을 덜거나 잠을 쫓기 위하여 자연스럽게 불러지던 노래로 2大別 된다. 대부분 같은 노래를 가지고 장소를 달리하여 부를 뿐인데, 일의 의욕을 북돋아 주고 즐거움을 주는 동시에, 노동의 능률을 가져오는 기능으로써 닻줄을 당기면서 부르는 노래의 경우는 선창자가 선소리를 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닻줄을 당기면서 후렴을 부른다.

〈멸치후리는 노래〉가 부녀자들에게서 불리어지는 까닭은 쪼갠 가입된 부녀자들이 작업에 직접 참석하여 노래를 배우거나 작업장에서 어깨 너머 배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연적으로 〈멸치후리는 노래〉는 이러한 두 가지 기능의 양상을 그 사설 속에 형상화시킬 수밖에 없다.

특히 테우 위에서 불러지는 〈멸치후리는 노래〉는 주로 남성들에 의해서 불러지는 만큼 남성들에 의한 작업의 실태나 그들의 의식세계가 투영되게 마련이다. 반면 백사장에서 여성들이 부르는 노래는 여성들이 부르는 만큼 여성들의 意識世界가 드러나게 된다.

## 6. 마무리

이상 本考에서 살펴 본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멸치후리는 노래〉는 제주도의 해안 마을 중 백사장이 널따랗게 형성된 곳 또는 주변 마을에서 공동으로 그물을 가지고 멸치후리기를 하면서 불러지던 노래이다. 과거 멸치잡이가 이루어지던 곳은 현재 해수욕장을 이루고 있는데 즉, 濟州市 梨湖洞·三陽洞, 涯月邑 郭支里, 翰林邑 挾才里, 大靜邑 下峯

里, 安德里 和順里, 表善面 表善里, 城山邑 新陽里, 舊左邑 細花里, 舊左邑 東金寧里, 朝天邑 威德里 등인데 지금은 조천읍 함덕리, 구좌읍 동김녕리, 성산읍 신양리, 성산읍 신천리에서 노래가 전승되고 있다.

(2) 멸치후리기는 집단어로이므로 주민들끼리 친선도모와 협력을 위한 계조직을 하는데, 이러한 공동 조직체를 <계> 또는 <집>, <제>라 부르며 집원의 수는 지형과 마을의 규모에 따라 일정치 않으며 규모가 큰 지역은 최대 8절까지 이루고 있다.

(3) 멸치후리기 작업은 정치망의 등장과 더불어 지역에 따라 20~50년 전에 자취를 감추었으며 노래는 일부 지역에서 전해지는데 현재 남아 있는 민요는 인위적 조건에 따라야만 들을 수 있다. <멸치후리는 노래>는 東金寧里, 新陽里에서는 여성 전승자에 의하여 불려지고 있으며 威德里, 新川里에서는 남성들에 의하여 불려지고 있다.

(4) <멸치후리는 노래>는 제주도 백사장이 깔린 해안마을에 본포되어 있으면서 함덕리, 동김녕리, 신양리, 신천리 등지에서 노래가 전해지고 있다. 멸치후리기를 하던 지역 중에서도 작업의 소멸 시기는 각각 다르며 제주도의 서쪽지역에 비하여 동쪽지역의 소멸시기가 느린 편이며 本考의 자료도 거의 동쪽지역의 것이다.

(5) <멸치후리는 노래>는 서민들의 일상감정을 노래한 사실보다는 작업실태를 나타낸 사실이 지배적이다. 이는 거치른 바다에서 힘든 동작을 요구하는 작업의 힘듬으로 인하여 저절로 작업의 실태를 사실내용에 담고 있기 때문이다.

(6) <멸치후리는 노래>는 행동 통일을 기함으로써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노래에 맞추어서 질서있게 일하는 기능 뿐만 아니라 작업과는 무관하게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부르는 自足的인 기능도 지니고 있다.

〈參考文獻〉

- 김무현, 「한국노동민요론」, 집문당, 1986.
- 金榮敦, 「濟州島民謠研究(上)」, 一潮閣, 1984.
- \_\_\_\_\_, “멀치후리는 노래”, 《濟州道無形文化財 調査報告書》, 제주도, 1986.
- \_\_\_\_\_, “민요의 기능과 사설”, 《韓國文學研究入門》, 지식산업사, 1982.
- \_\_\_\_\_, “濟州島民謠研究: 女性勞動謠를 中心으로”, 東國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83.
- 高光敏, “濟州島民具(Ⅱ): 제주도의 떼배와 그 어로 행위들”, 《耽羅文化》 제 4호,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85.